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22일 목요일 음 12월 4일 (11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70%	제주	60%
70%	성산	60%
70%	고산	60%
70%	서귀포	6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대체로 흐림 1/10°C
모레 구름많음 3/10°C

대체로 흐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C, 낮 최고기온은 4~6°C로 예상된다. 곳에 따라 눈이 오겠으니 빙판길에 주의해야겠다. 강추위와 강풍, 풍랑에 유의해야겠다.

해뜰 07:36	달뜰 09:35
해침 17:55	달침 21:21

물때 만조 00:20 간조 06:54
13:04 19:38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이민단속 총격사망' 美 미네소타서 시위

23일 '경제 셧다운'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 대규모 연방 요원을 투입해 강경한 이민 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지역 단체단체들이 대규모 '경제 셧다운' (economic blackout) 시위를 예고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폴스뉴스 와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네소타 지역 노동조합과 종교·시민사회 지도자들은 오는 23일 출근·등교·쇼핑을 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미니애폴리스 대운하에서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 강화 항의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 강화 항의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37세 미국인 여성 르네 굿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항의 표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000명의 연방 요원을 미네소타에 파견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몇 주간 미네소타주에서 2400명 이상이 체포되고 현지 여성이 숨지자 지역 사회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연합뉴스

'경제 셧다운' 시위는 이달 초

한국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육 편집국장 고 대 로

④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 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hallala.com>

e-mail: hl@hallala.com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기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임택규

한국도시계획기협회 제주지회장·공학박사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C, 낮 최고기온은 4~6°C로 예상된다. 곳에 따라 눈이 오겠으니 빙판길에 주의해야겠다. 강추위와 강풍, 풍랑에 유의해야겠다.

저출생·고령화는 이제 뉴노멀이 됐다.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북한이 침공 없이 걸어와 한국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 감소 상황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2020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그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수준이다. 제주 지역 역시 2022년 67만 8000명을 정점으로 2025년에는 66만 5000명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2010년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감소 국면에

인구정책, 생활인구를 고려하자

접어들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사회 구조, 경제 시스템은 물론 국가의 지속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그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를 둘러싼 변화와 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주목 받고 있다. 생활인구는 일본 지방 창생 전략의 '관계인구'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정주 인구 외 체류인구를 지역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보는 접근이다. 제주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정주인구와 외

국인, 체류인구로 구성된다. 체류인구는 통근·통학, 관광·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의미한다. 생활인구 조사는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와 신용카드 사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지며, 매월 단위로 체류 일수별 연령, 내·외국인 구분, 소비특성 등의 자료를 분기별로 제공한다.

현재 생활인구 자료는 인구감소 지역 8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도를 고려할 때, 전국 지자체 단위로 확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장래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구를 지방교부세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생활인구 자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활용될 전망이다.

열린마당

2026년, 당신의 '갓생' 을 응원합니다



차무관

주자연사무소 부면장

2026년의 첫 달이 지나고 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운동, 독서, 자산관리 등 저마다의 다짐을 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작심삼일'의 굴레는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리곤 한다. 만약 당신이 별씨 결심의 고비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제는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막연한 의지가 아닌,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에 집중해야 할 때다.

작년 계획 중에 작심삼일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잘한 점은 스스로 칭찬하고, 실패의 원인을 내면의 의지 부족과 더불어

'외부적 환경'도 살펴봐야 한한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해야 하며, 명확한 기한이 설정될 때 비로소 행동의 동력이 생긴다. 특히 목표를 '최소 습관' 단위로 쪼개는 것이 핵심이다.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바닥 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약해져도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 환경 설정이다. 아침 운동을 원한다면 머리맡에 운동복을 두고 자고, 독서를 원한다면 책을 손이 닿는 곳에 놓아야 한다.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 내가 만든 시스템이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것이다.

2026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반복이다. 올해 연말, 스스로에게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성장을 이뤄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한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그 결심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사소한 시스템의 힘이다.

겨울 산악사고, 준비 부족이 사고로 이어진다



진수빈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고

겨울이 되면 소방서의 출동은 더욱 긴박해진다. 특히 제주에서는 겨울철 산악사고가 매년 반복되며, 구조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겨울철 한라산 탐방로는 눈과 결빙, 화산 암반 지형이 겹쳐 매우 미끄럽고 위험하다. 평소보다 체력 소모가 크고, 작은 부상도 저체온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해가 짧은 겨울철에는 하산 시간을 놓쳐 어둠 속에서 조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조금만 더 가보자"는 판단이 구조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방한 장비 없이 산에 오

르거나, 탐방로 통제 여부와 기상 특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산행을 강행하는 분들도 많다. 한라산 탐방로 통제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겨울철 제주 산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몇 가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

첫째, 산행 전 기상 예보와 한라산 탐방로 통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방한복·아이젠 등 겨울 산행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해지기 전 하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혼자보다는 동행 산행을 원칙으로 하고, 무리한 일정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구조대원으로서 겨울 산악사고 현장을 경험하며 느끼는 것은 자연을 양보하는 순간 사고는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제주 겨울 산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길을 내어준다. 작은 준비와 판단으로 생명과 추억을 지키는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

감귤 신품종 분양

2026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콤이, 맷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봉

온주

궁천, 하례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 임대만료로 특별 분양

유라조생, 레드향, 카라향

(3년생 본당 10,000원 100% 이식묘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처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 국내육성품종(1~3년생)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봉
- 미니론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장률이 높고 심한 시기 조절 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합실시 계약자로 생산, 축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에동 1831-2번지
우편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4-5423

한라종묘

종자업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4-5423

010-2699-2355